

Magazine

CGN

Winter 2014_Vol.7



〈커버스토리〉 테너 배재철
오늘도 그의 노래는

Amazing Grace

CGN Story

2014 CGN의 사계(四季)

CGN Family 〈골프선수 최경주〉

CGN focus '드림온 콘서트' 스케치

CGN Choice 성탄 특집 프로그램



www.cgntv.net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 TV
tel.02-796-9800 fax.02-749-6638

그럴 때가 있다

순간 카메라가 떨릴 때가 있다.
우연히 좋은 장면을 만나게 되면 심장이 뛸 때가 있다.
카메라를 든 손이 나도 모르게 씬 없이 셔터를 눌러대고 있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심장이 멎는 듯 멍멍해질 때가 있다.

이날 오후가 그랬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흙먼지를 날리며 다가오는 가축의 무리를 보았을 때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카메라를 들고 10시간을 넘게 달려온 나에게
이 순간은 선물 같았다.

셔터를 누르고 눈으로 바라보고
셔터를 누르고 눈으로 바라보고...

반복적으로 사진을 찍고 눈으로 장면을 담았다.
여섯 번째 에티오피아 여행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컴퓨터에서 꺼내고 싶지 않을 만큼
이날의 감정은 애뜻했다.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진이 있으니...

— 에티오피아

신미식 | 사진작가, 여행수필가 |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프레임 안에 사람과 삶, 다채로운 풍경을 담아낸다.
저서 <머문자리>, <사진가는 길에서 사람을 배운다>, <에티오피아, 천국의 땅>의 다수

긴 겨울, 하나님 날개 아래서

늦가을 아름다운 단풍이 떨어지고 어느 새 싸늘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다사다난(多事多難)하지 않을 때가 없지만 올 2014년은 유독 큰 사건이 많았습니다. '세월호침몰사건'은 무려 304명의 희생자를 내며 사회전체에 깊은 아픔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도 침체돼 올 겨울은 많은 이들에게 참 길고 추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잡지 못해 방황하고, 퇴직한 가장들은 허드렛일이라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딱한 처지로 몰렸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어깨가 무겁게 느껴져 더욱 안타까운 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를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보며, 더욱 복음의 소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문득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동굴에 숨어서 올렸던 기도인 시편 57편 1절도 떠오릅니다.

얼마 전, 미국 '스타트리뷴' 편집장 에빈 램스타트 기자가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지도자도 이제 다시 일어서자(It's OK to move on)"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리더십의 부재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9.11 테러 당시 일주일 만에 '일상으로 복귀'를 설득하며 참사의 후유증을 극복하려 했던 노력과 비교하며 쓴 기사입니다. 물론 상황이 다르지만 지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리더십의 위기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탓하며 좌절에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암담할지라도 하나님의 리더십을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어려운 순간, CGNTV를 하나님의 날개 삼아 힘을 얻곤 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전파되는 그 위로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순수복음방송 CGNTV는 주님의 지팡이이자 길잡이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히브리서13:16)"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 되어 이 긴 겨울의 한파를 이겨냅시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포토에세이 | 사진작가 신미식
프롤로그 | CGNTV 운영위원 운영각 장로

CGN STORY

06

CGN 스토리 | 2014 CGN의 사계(四季)
지구촌 선교교육방송의 이름으로

10

커버스토리 | 테너 배재철
오늘도 그의 노래는, Amazing Grace

PEOPLE

12

선교지의 아침 | 러시아 우중철, 유정숙 선교사 부부
선교지의 애환과 함께 오늘도 어제처럼

14

CGN 패밀리 | 골프선수 최경주
CGN, 탱크 최경주와 함께

16

초대석 | CGN 원로들의 대화(유재건, 정상건, 배중수, 손한기)
숨은 섬김들의 열매

PROGRAM

19

CGN 초이스 | 성탄 특집 프로그램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이야기

21

제작후기 | <러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사역에 희망을 보며

22

현장스케치 |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뮤지컬 배우 양준모 편
온기로 가득했던 1박 2일

CGN

Magazine CGN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4년 12월 20일 (통권 제7호) | 발행처 CGNTV (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85-4 CGNTV | 발행인 이재훈 | 대표 유재건 | 편집인 김경훈, 함태경 | 기획 CGNTV 홍보팀
진행·편집 정원이, 조인애 | 글 조인애 | 사진 정현우, 엄기원, 여준원, 스파지오 | 디자인·인쇄 페이지원 (02-757-3111)
표지 사진 장소협찬 탐클래스 뮤직스튜디오

C O N T E N T S

Winter 2014_Vol.7



표지 이야기
다시 찾은 목소리로...
최고의 무대에서 빛나는 무대로
테너 배재철 스토리.

MISSION

24

CGN 스페셜 | 함태경 CGNTV 경영기획본부장
미디어 선교

NEWS

26

해외뉴스

28

국내뉴스

SUPPORT

30

CGN 포커스 | 드림온 콘서트

31

줌 인 인터뷰 | 소프라노 이은영

32

후원자 사연

33

후원안내

34

요일별 편성표

지구촌 선교교육방송의 이름으로

국내외 선교지와 동행한 2014 사계절

2014년 CGNTV의 사계절은 '선교'를 향한 방향으로 걸어오면서, 국내 선교에 더욱 주목했고, 직원들이 직접 선교지로 파송되기도 했다. 각 해외지사들은 현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며 현지를 돕는 프로그램들을 제작했고, 국민의 85%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는 6번째 CGNTV 해외지사가 터를 잡았다. 지나 온 발자취가 또 다른 길을 내는 사역. 지난 2014년 CGN의 사계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2015년을 내다봤다.

START, *SPRING*

새해를 맞는 CGNTV의 계획은 늘 생명을 낳는 '선교'에 있다. '시니어, 청년' 선교 이슈화를 연중 특별 캠페인으로 추진했고, 꿈을 안은 신규 프로그램들을 내놓았다. 2기 선교 헌신자들이 선발됐고, 방송 저변이 확대되는 소식들이 있었다.

1. '시니어, 청년' 선교를 위한 파이팅

- 프로그램 <CGN청춘선교단 은빛날개>, <청년전도프로젝트 RUN> 활성화

CGNTV는 2014년 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를 청년들을 위해 캠페인 성 신규프로그램 <CGN청춘선교단 은빛날개>와 <청년전도프로젝트 RUN>을 내놓았다. <은빛날개>는 시니어 선교에 뜻이 있는 7명이 선발돼 매주 CGN이 기획한 선교 훈련을 받으며 시니어 선교사로 준비를 마쳤다. 실제 청년 전도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 <RUN>은 방송 후 유튜브 및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며 청년 전도자들에게 다양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 해외지사들, 현지를 위한 새 해 청사진

- 미주 전역 방송 송출, 일본 차세대 선교 박차

미주지사는 1월 위성 Galaxy-19을 통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한 미주 전역에 방송을 송출하게 됐다. 지난 8년 간 일본 선교 사역에 주력해 온 일본 지사는 2014년 '어린이 주일학교와 이스라엘 사역'을 비전으로 내걸고 한 해 동안 <기획 좌담회> <이스라엘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방송했다.

3. 국내, 북한 선교를 위해 한걸음

- 신규 프로그램, 2기 선교 헌신자, IPTV 3사 풀HD 방송

봄 개편 신규프로그램 <통일 북소리>는 기존 북한 선교프로그램 <반갑습니다> 시즌 2로, 좀 더 다채로운 기획으로 북한을 한층 더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는 국내 선교 활성화의 일환으로 국내 곳곳에서 소리 없이 사역중인 교향교회들을 조명했다. 이밖에 CGNTV는 지난 3월 개국 9주년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제 2기 선교 헌신자를 선발했고, 주요 IPTV 3사에서 모두 풀HD 방송을 시행해 시청자들이 좀 더 좋은 화질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HOT, *SUMMER*

한 해의 중반부로 달려가는 여름, CGNTV 사역의 열기도 뜨거워졌다. 전 직원들이 선교지 곳곳으로 아웃리치를 떠났고, 지난 해 선발됐던 제1기 선교 헌신자들이 각각 기도했던 나라들로 파송됐다. 현지 선교를 위한 해외지사들의 움직임도 더욱 무르익어갔다.

4. 올해도 어김없이 선교지 밟기

- 연말까지 이어진 전 직원 아웃리치

점점 뜨거워져 가는 여름 시즌, CGNTV 전 직원들은 국내를 비롯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필리핀까지 총 7개 국가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특히 올해는 2015년 개국 10주년을 앞두고 7월부터 연말까지 아웃리치가 꾸준히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팀은 9월에 진행된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에 조력했고, 인도 팀은 지난 2012년 뉴델리에 이어 나갈랜드를 중심으로 지사 개척을 위한 현지 조사를 다녀왔다.

5. 선교지를 품은 방송선교사들

- 제1기 선교 헌신자 본격 파송

2013년 처음 선발된 CGNTV 제1기 직원 선교 헌신자 4명이 지난 7월 25일 1년 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CGNTV 1호 선교사로 파송됐다. 운영준 국장은 1호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지사로 파견돼 인도네시아 CGNTV를 총괄 담당하게 됐다. 현지 선교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현지 선교 네트워크를 위한 사역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2기 선교헌신자로 선발된 신정길 사원도 이 사역에 함께 투입됐다. 이철원 PD는 일본 오사카로, 박미진 사원은 일본 동경으로 각각 파견됐다.



6. 현지 선교를 위한 한 발 앞선 고민

- 아랍 <미디어 미션 콘퍼런스>, 미주 <한인 이민교회를 위한 특별 대담>, 중문CGNTV 개국 6주년

아랍CGNTV는 지난 6월 아랍지역 최초로 <미디어 미션 콘퍼런스>를 진행했다. 미디어 선교는 직접적인 포교가 어려운 아랍에 효과적인 선교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CGNTV를 포함 10여 명의 분야별 전문 패널들이 사역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선교를 위한 방향성을 나눴다. 미주CGNTV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주 지역 내 '한인 이민교회'에 집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중국대륙 및 중화권과 함께 해 온 중문CGNTV는 개국 6주년을 맞아 그간 동역해 온 대만교회 목회자, 성도, 한국인 70여 명을 초청해 감사예배를 드렸다. 참석자들은 CGNTV 사역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더욱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HARVEST, *AUTUMN*

가을로 접어들며 뜻을 갖고 준비했던 연초 계획들이 하나 둘 결실을 맺으며 또 다른 사역의 밑거름이 됐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CGNTV 인도네시아 지사가 지난 9월 출범했고, CGN청춘선교단들이 7인 전원 과정을 수료했다. 다채로운 CGNTV 후원행사를 통해 값진 결실들을 맺기도 했다.

7. 러브 인도네시아

- 9월 인도네시아 CGNTV 지사 설립



CGNTV의 여섯 번째 해외 지사인 인도네시아CGNTV가 지난 9월 출범했다.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최대 위성방송 업체인 인도비전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차근차근 준비를 마친 지사는 9월부터 2시간씩 본격적으로 복음방송을 시작했다. 이를 기념해 9월 18일 진행된 문화 행사 <러브 인도네시아>는 양국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하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고, 현지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러브 인도네시아>는 행사를 준비하며 현지 교회, 교단, 선교사들이 적극 협력해 향후 인도네시아CGNTV 행보에 희망을 보여주었다.

8. 후원의 열매

- CGNTV 정기 후원행사 외

100% 후원으로 운영되는 CGNTV는 올 가을, 더 많은 후원자들을 통해 든든한 동력을 얻었다. 지난 10월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진행된 정기 후원 행사에서는 총 3800여 명이 후원을 약속하는 결과를 냈다. 선교에 대한 성도들의 열정과 CGNTV 직원들 및 동역자들의 노력이 빛은 이번 결과로 CGNTV는 총 2만 3천 명의 정기 후원자와 함께 하게 됐다. 또한 협력 교회인 서울 동안교회에서도 지난 11월 CGNTV 사역 소개 및 후원 약속 시간을 가졌고, 일일 총 230여 명이 후원을 약속하는 성과가 있었다.

9. 비상을 꿈꾸며

- 일본CGNTV 8주년 기념 세미나, 청춘선교단 수료식

개국 8주년을 맞은 일본 CGNTV는 감사 예배와 함께 일본 관서 지역 목회자, 성도 700여 명을 초청해 '비상'을 주제로 사역의 비상을 위한 세미나 및 집회를 마련했다. 연초 야심차게 출발했던 <CGN청춘선교단 은빛날개>의 7명 출연진들도 지난 9월 시니어선교를 위한 훈련 전 과정을 마치고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가졌다. 이들은 향후 각자 시니어 선교 사역을 위한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AGAIN, *WINTER*

2014년이 저물어 가면서 CGNTV는 감사의 자리로 한 해를 마무리 하며, 새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온누리교회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를 생중계 하면서 지구촌 수많은 성도들과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고, CGNTV 개국 10주년을 준비하며 희망 찬 내일을 그렸다.

10. 꿈을 향한 마음을 모아

- 2014 드림은 콘서트



CGNTV 후원을 위한 '드림은 콘서트'가 지난 11월 27일 서울 그랜드 앰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됐다. 300여 명이 초청된 이번 자리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 더욱 뜻 깊은 자리였다. 무대에 오른 게스트들마다 공연자이기에 앞서 후원자인 것을 밝히면서 무대와 객석이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고, 간증을 나누는 참가자들의 이야기에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메시지를 전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는 "찬송과 경배의 모습이 아름다운 밤"이라며 "순전한 믿음으로 CGNTV 방송선교 사역을 이뤄가자"고 당부했다.

11. 새해를 위한 계획

-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 생중계, 2015 10주년 기획 워크숍

새해를 앞두고 CGNTV는 온누리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현장을 생중계 한다. 12월 15일(월)부터 1월 24일(토)까지 오전 5시 20분에 방송된다. 2015년 CGNTV 개국 1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CGNTV 전 직원 워크숍이 지난 12월 5일(금)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진행됐다.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주요 행사 및 신규 프로그램 등 각 부서별로 기도하고 준비했던 내용들이 공유됐고, 사역의 큰 방향에 뜻을 같이했다. CGNTV는 2015년 10주년 기념 예배, 히스토리 북 제작, 10주년 사이트 오픈, 감사콘서트 등을 준비하고 있다.



12.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그리고 가까이'

- 2015년 개국 10주년 기념 새로운 도약

CGNTV는 개국 10주년을 맞은 2015년, 지난 10년 사역의 길을 발판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그리고 가까이'란 슬로건을 정하고, '글로벌'에서 '글로벌(Global+local : 지역특성을 살린 세계화) 선교교육방송'으로, 복음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 가고, 그들이 필요한 맞춤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선교, 통일한국, 차세대, 하나님의 정의'를 4대 핵심 가치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미디어 사역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오늘도 그의 노래는, *Amazing Grace*

2008년 요코하마 '러브소나타'. 순서 중반부 즈음 테너 배재철이 등장했다. 어두운 무대 위에서 홀로 조명을 받고 서 있던 그는 차분한 음성으로 찬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렀다. 그가 부른 찬양은 두 곡이었지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되는 첫 곡부터 '내 영혼이 찬양하네'로 끝나는 다음 곡의 끝까지 모두 하나로 이어지는 그의 고백이자 경배였다. 고요한 가운데 공연장을 채운 그 소리는 전반부 순서로 마음을 연 관객들의 가슴에 그대로 스며들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에 울려 퍼지길 기도하며 시작된 '러브소나타'에 그는 누구보다 적합한 하나님의 메신저였다.



영화가 된 삶

올 연말 배재철의 실화를 담은 영화 <더 테너-리리코 스피노>(감독 김상만, 주연 유지태)(사진 위-영화, 오페라 장면)가 개봉한다. 스크린으로 옮겨간 그의 지난 삶은 어떨까. 당사자인 그는 영화를 보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마다 울컥했다"고 말했다. 아마도 두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의 파노라마가 주마등처럼 스쳐갔기 때문일 것이다.

배재철은 영국의 더 타임즈를 통해 "아시아 오페라 역사상 100년에 한 번 나올법한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았다. 주역을 꿰찼던 수많은 무대나 수상 경력들이 그 명성을 뒷받침해준다. 하지만 최고였던 그가 2005년 갑상선 암 선고를 받았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전부였던 노래를 더 이상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기도 했다. 피하고 싶은 현실이었지만, 수술을 피할 수는 없었고, 안타깝게도 그는 수술 중 한쪽 성대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당시에 대해 "갑자기 너무 큰 일이 닥치니까 머리가 그저 백지가 됐죠. 리셋이 된 느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내 편안함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 회상했다. 당시 의사는 그에게 "앞으로 노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에게 절대 못하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의사는 비유를 들어 "당신은 한 다리로 뛰는 육상선수 같을 거다"라고 답했다. 그는 "그럼 한 다리로 뛸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 때부터 한줄기 소망을 품었다.

이후 그는 누구보다 그의 목소리를 아꼈던, 지금은 그의 매니저이자 10년 지기 벗이 된 일본인 와자마를 통해 성대 복원 수술의 권위자 이즈키 박사를 소개받게 됐다. 갑상선 수술을 받은 지 6개월 만의 일이었다. 수술은 성대부분만 극소마취를 하고 목소리를 체크해가며 진행되는 방식이었다. 노래 한 곡 불러보라는 의사의 주문에 그는 2008년 요코하마 '러브소나타' 무대에서 부르기도 했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렀다. 그의 수술 장면은 일본 아침 뉴스를 통해 전파를 타며 화제가 됐고, NHK를 통해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영되면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또 이 장면은 개봉을 앞둔 영화 <더 테너>에서도 핵심 장면이 됐다.

그의 무대 2막

그는 수술을 기다리는 6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에 나갔다. 독일에 거주하고 있던 그는 고속도로로 한 시간을 달려 교회로 향했고,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만 기도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세계 목소리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 수술 중



'주 하나님...'을 부르게 된 이유도 그때 드렸던 기도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수술 후 삶의 주체가 바뀌었죠. 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는 아직도 목소리가 이전의 50%에도 못 미치는 상태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있다. 또한 "목소리를 드리겠다"고 기도했던 대로 수술 전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공연뿐만 아니라 후학들 양성에 힘쓰고 있고, 교회 무대를 돌며 찬양하고 간증하는 일도 많아졌다. CGNTV 출연이나 2008년 이후 꾸준히 '러브소나타' 무대에 서는 것도 같은 행보다.

"지금은 모든 무대가 의미 있어요. 편안하고 걱정 없이 소리를 낼 수 있는 무대였다면 또 달랐을 거예요. 매번 노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격입니다." 일본에서 사랑받던 오페라 가수가 일본 복음화를 위한 '러브소나타'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저 우연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영화 <더 테너> 제작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이야기해주는 것은 물론 몸소 주연배우 유지태의 레슨을 맡았다. 배우 표정의 디테일이나 무대 장면을 촬영할 때도 음악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배우를 통해 표현되는 각 무대들에서는 실제 그가 불렀던 음원들이 나온다. <더 테너>는 비록 영화의 옷을 입었지만, 영화 곳곳 절망을 이겨낸 그의 숨결이 묻어있을 듯 싶다.

영화는 주인공이 '에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며 끝을 맺는다. 상업영화를 표방하는 영화지만 그는 "그 한 곡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했다. '놀라운 은혜', 그는 서는 무대마다, 많은 의미가 담긴 그 노래를 여전히 부르고 있다.

선교지의 애환과 함께 오늘도 어제처럼

“선교지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
주님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자리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 사역중인 우종철, 유정숙 선교사 부부가 전하는 말이다. 이는 갖은 우여곡절의 세월을 지나며 지난 16년 간 선교지를 지켜 온 그들의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이젠 고국보다는 본향인 하늘나라를 그리며 헌신하고 있다는 그들. 개인 사정으로 한동안 CGNTV를 볼 수 없었던 두 사람을 지난 가을, CGNTV 아웃리치 팀이 찾아갔다. 다시 만난 CGNTV를 앞에 두고 그들의 선교 이야기를 들어봤다.



1,2. 한국 단기 선교팀과 사역중인 모습.
3. 우종철 유정숙 선교사 가족.
4. 블라디보스토크 창신교회 예배 모습.
5. CGNTV 아웃리치 팀과 함께.

러시아 선교사들 입소문

“처음 방송을 보고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종일 CGNTV를 틀어놓았어요. 당시 한 선교사를 통해 CGNTV를 소개 받고 우리에게는 언제 기회가 올까 싶었는데 연락이 와서 정말 기뻐합니다.”

우 선교사 가정은 7년 전 처음 CGNTV를 만났다. 그에게 선교

지는 말씀은 물론 세미나, 심지어 기도원도 없는 영적으로 굉장히 곤고한 곳이었기 때문에 CGNTV는 그의 선교 여정 중 반드시 필요했던 샘물 같았다.

그가 CGNTV에 대해 “유명 목회자들의 설교가 많이 나오는 방송”이라고 떠올리는 이유도 그가 가장 반가웠던 부분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4년 전 살고 있던 집의 월세가 갑작스럽게 오르면서 부득불 이사를 해야 했고, 한동안 CGNTV도 볼 수 없었다.

CGNTV가 그의 사역에 꼭 필요한 동역자였을까? 그는 올해 CGNTV 직원 아웃리치를 통해 다시 한 번 안테나를 설치받게 됐다.

“좋은 말씀을 통해 받은 영감과 감동으로 설교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또한 연해주 우수리스크 지역은 한국말을 아는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 지역 선교사들은 교회에도 설치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가 한 선교사의 입을 통해 CGNTV를 만났듯, 그의 주변 많은 선교사들도 지금 CGNTV 설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아마 선교는 영적 전쟁이고, 어떤 선교사에게든 우 선교사 내외가 말했듯, 십자가를 따르는 외로운 길이기 때문일 것이다.

십자가의 길, 은혜의 아침

우 선교사 내외는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창신교회를 개척해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중이다. 러시아 교회 대부분이 성도가 10명도 채 모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교회에는 성도 100여 명이 모이고 있다.

처음 러시아로 발걸음을 땀 때부터 현재 그 영혼들이 하나 둘 모이기까지 부부는 난관도 많이 겪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만큼 은혜도 컸다. “선교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라고 확신할 만큼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킬만한 수많은 일을 겪었다.

사역을 시작할 때 부부는 교회당을 짓는 것이 가장 큰 기도제목이었다. 러시아는 정교회 교회당이 그럴듯해 예배당이 없는 경우 이단이나 안 좋은 종교단체로 의심받을 수 있는 우려가 컸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는 한국에서 최초로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던 땅으로, 교회당을 재건하는 것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 곳이다.

파송교회와 여러 시각 차이를 겪으며 출발이 어려웠지만, 그들은 결국 예비 된 손길들을 통해 지금의 교회를 짓게 됐다. 건축 당시, 통역을 맡았던 고려인들에게 사기를 당할 위기도 있었지만 그 또한 은혜로 잘 피해질 수 있었다. 한번은 교회 성도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국으로 추방될 상황까지 가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사역에 가장 큰 위기는 한국에 떨어진 아들인 군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였다. 줄곧 러시아에서 성장한 아들이 한국어에 서툴고 군대 용어나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 그런 차이가 선임들의 언어폭력 등으로 이어지면서 아들이 결국 실어증 증세까지 앓게 된 것이다.

지금도 큰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그들은 당시 선교지를 버리고 먼저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한 선교사의 권면으로, 계속 선교지를 지켰고, 지금은 기적적인 역사로 아들이 많이 회복되어 조만간 복학도 할 계획이다.

그들은 지난 16년 사역 동안 이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기도로 풀어갔다. 잘 충성하던 이들도 어느 순간 뒤돌아 떠나버리는 허탈함도 수없이 겪었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추수 때 농부처럼 누구보다 온 몸으로 기억하는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60세를 앞두고 있는 부부 선교사는 다시 선교사를 하라고 해도 ‘기꺼이 예스’라고 답했다. 이유도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확신을 주신다는 것.

그들은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이혼률이 70%가 넘는다”며 “이 곳을 위해 가정 사역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달라”고 CGNTV에 부탁했다.



CGN, 탱크 최경주와 함께

“신이 우즈를 선택했다면 최경주는 신을 감동시켰다.”

최경주 선수가 2002년 타이거 우즈가 주최한 미국 PGA 투어 AT&T 내셔널에서 우즈를 제치고 짜릿하게 역전 우승했을 당시, 한 시인이 시사주간지에 썼던 글의 카피다. ‘신을 감동시킨 최경주’. 그 시인은 최 선수의 우직한 근성은 물론 그의 ‘이웃사랑’, ‘신앙의 삶’에 착안해 그 글귀를 떠올렸다고 했다. 말씀에 따라 혼자가 아닌 가족, 이웃과 더불어 여기까지 달려온 ‘탱크 최경주’. 이제까지 그래왔듯, 마음이 미치는 일엔 주저함 없이 행동하는 그는 CGNTV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CGN과의 만남

최 선수가 처음 CGNTV를 접한 것은 미국 휴스턴에 살고 있을 때였다. 당시 그는 한국 방송을 전혀 볼 수 없었는데, 한 선교사를 통해 CGNTV 안테나를 설치받게 됐다. 방송을 처음 보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가 ‘최경주재단’을 통해 ‘제2, 제3의 최경주’를 후원하고 격려하듯, 그는 몸소 겪은 이 경험 때문에 CGNTV 홍보대사로서, 방송 선교사역에 각별한 애정을 갖게 됐다. TV안테나 하나가 오지 선교사들에게 어떤 힘이고 의미일지 아는 것이다. 그는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왔던 힘의 원천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가 열정, 두 번째가 지인들이 주는 힘,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 그는 CGNTV가 지인처럼 선교지에 힘을 북돋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골프와의 만남

1970년 5월 19일 전남 완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각종 운동에 소질을 보여 완도 화흥 초등학교 시절 축구와 역도 선수로 뛰기도 했다. 그러다 완도수산고등학교 1학년 때 체육교사의 권유로 처음 골프채를 잡았다.

동네에 생기는 골프 연습장을 보며 “저것은 분명 닭장 아니면 꿩 사육장이다”라고 말했다 만큼 골프와 거리가 먼 그였지만, 그는 처음 공을 치면서 그 맛에 전율을 느꼈고 초록 필드를 가르고 파란 하늘로 날아가는 공에 반했다. “그 한 샷이 제 마음 속에 아직도 불꽃입니다. 꺼지지 않는 열정이죠. 그 불꽃 때문에 주변 분들이 조금만 격려해 주셔도 저는 또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의 가족들은 그 불꽃을 일으키는 일등공신이다. 특히 그는 부인을 만나면서 신앙도 갖게 됐다. 그는 1993년 처음 교회에 출석한 후, 6년이 지난 1999년 세례를 받았다. 그 후 그는 일본 기린 오픈에 출전하게 됐는데, 대회 마지막 날 시합에서 처음 기도를 하게 됐다. 마지막 홀에 공을 넣으면 연장전, 못 넣으면 끝나는 순간이었다. “저도 모르게 모자를 푹 쓰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눈을 뜨고 나니 눈앞에 금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신호를 주신 겁니다.” 그는 그날 연장전까지 갔고 결국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이 경기를 계기로 미국 PGA 투어 참가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선수로서 한 발자국씩 다음 길을 내딛게 될 때마다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PGA 투어 입성을 위한 마지막 경기에서도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눈을 감았고, 일본 경기 때와 같이 눈앞에 선이 보여 그너머로 공을 날렸다. 결국 그는 PGA 투어에 입성하게 됐고, 8승의 주인공이 됐다.

말씀과의 만남

그는 2007년 타이거 우즈와 붙은 경기에서도 남다른 간증을 갖고 있다. 처음으로 아내가 시합에 나가기 전 말씀을 암송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 외웠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였다. 말씀을 다 외우고 시합에 임했던 그날, 그는 아내가 자신을 소개하



선수로서 한 발자국씩
다음 길을 내딛게 될 때마다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자마자 갑자기 머리에서 말씀이 까맣게 지워졌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기에 들어가면 계산에 바쁘는데 그는 떠오르지 않는 그 말씀에만 계속 붙들려 있었다. 경기가 한참 진행되며 온갖 생각들이 오갔지만, 자신도 모르는 새 스코어판 제일 위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감사가 흘러나왔다. 외웠던 말씀이 갑자기 술술 떠오르는 것도 경험했다. 그는 간절했던 이 경기에서도 결국 말씀을 붙들고 우승했다.

이제 그는 선수로서 10승을 목표로 두고 있다. 굵이굵이 간절했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승리했던 ‘탱크 최경주’는 지금도 그 믿음을 자산으로 선수의 길, 재단을 통한 후학 양성, CGN 패밀리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0월 CGNTV 후원을 위한 행사에 참석해 그가 전했던 말들은 많은 이들에게 더욱 확신 있게 들렸다. “씨를 심고 썩어 터져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자리, 더욱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의 열매를 위해 앞으로 저희가 함께 씨 뿌리고 가꾸며 열매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CGN과 함께 10년 원로들의 대화 “숨은 섬김들의 열매”

〈참석자〉 사진 왼쪽부터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78), CGNTV 초대 대표 손한기 장로(68)

현 CGNTV 대표 유재건 장로(78), 실행위원장 배중수 장로(73)



흰 눈이 거리를 뒤덮은 2014년 끝자락. CGNTV의 원로들을 초청해 10주년을 코앞에 둔 CGNTV의 나아갈 바를 물었다. 네 사람의 신앙적, 사회적 무게만큼 묵직한 담론이 예상됐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담소 같았다. CGNTV 태동기의 일화, CGNTV를 섬기면서 느꼈던 몽클했던 순간, “요즘엔 내 일보다 더 마음이 쓰인다”며 여전히 손을 놓지 못하는 마음 등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진심이 묻어나는 생각들. 진행은 현 CGNTV 대표 유재건 장로가 맡았다.

손한기 장로님(이하 손)은 초대 대표셨는데 어떻게 이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셨나요?

손 > 2000년 즈음 하용조 목사님(CGNTV 설립자)께서 부르셨어요. 당회장실로 찾아갔는데, 갑자기 제 앞에 수표 한 장을 꺼내놓으셨죠. 누가 고액을 현금했는데, 너무 고액이라서 당황스러우시다고. 18억이었지요. 현금자가 온누리교회 성도도 아니었어요. 기업인 오상수 회장이었습니다. 결국 목사님께서 당사자를 불러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는지 물으셨어요. 목사님 뜻대로 사용해주시라고 해서, 목사님께서 IT로 돈을 버셨으니 IT

분야에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CGNTV의 전신인 ‘온누리 인터넷방송’이 생기게 됐죠. 그때 제가 대표로 취임해 교회와 회사의 브릿지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2년 후에 또 생각지도 못한 현금이 들어 왔었죠? 그분이 배중수 장로님(이하 배)과 동기동창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 > 고(故) 녹십자 허영섭 회장이십니다. 5억을 현금하셨습니다. 당시 그분이 기독교 방송을 보시다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무척 많



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방송의 질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에 현금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해당 방송국으로 찾아가지 않고 하 목사님께 온 것이 특이했죠.

그 현금은 어떻게 사용됐나요?

손 > 당시 방송사 경력이 있었던 온누리교회 박종렬 목사님이 해당 방송사에 본부장으로 파송되었고, 방송국의 편성, 프로그램 제작을 맡았습니다. 여러모로 그 방송사가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됐죠. 일 년 뒤 해당 방송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박 목사님이 부득불 돌아오게 됐고, 자연스럽게 CGNTV가 구상됐습니다. 박 목사님이 이를 위해 일 년 간 잘 훈련받고 오신 셈이 됐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정상건 장로님(이하 정)께서도 초창기부터 운영위원회로 협력하셨죠?

정 > 하 목사님께서 CGNTV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바쁘셨을 때 그분의 열정에 감동 받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작하며 두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용기와 아이디어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비전이 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이 좋은 프로그램에 감동을 받아 또 다른 후원을 낳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 장로님은 참 묵묵히 늘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배 > 전 큰 역할을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 목사님께서 세우신 비전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애쓰다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 사역에 대해 기적 같다고 이야

기 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CGNTV를 위해 헌신하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첫 시작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 일이 점점 영글어 가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죠.”

국내에 위성방송이 많지 않은데 참 도전적인 시도였습니다.

손 > 아프가니스탄 정전 때 하 목사님께서 그곳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CNN 기자들이 위성 접시 하나를 놓고 전 세계로 방송을 하는 것을 보시고, 목사님께서 위성 하나면 전 세계 선교지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리랑TV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께 연간 예산을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금액을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실례지만 위성방송이 뭔지는 아십니까?”라고 묻기까지 했죠. 금액이 당시 아리랑TV 연 예산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답변이 멋졌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시작했겠습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했던 사역이었습니다.

얼마 전 후원의 밤 행사에서 가나 이태현 선교사님께서 “CGNTV가 생명줄”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참 감명 깊었습니다. 자긍심도 들었고요. 장로님들도 지난 10여 년 아웃리치도 다니셨고, 여러 감동의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요.

정 > 일본 복음화를 위한 문화 행사 <러브소나타>도 2016년엔 10주년인데, 동경에서 전 일본 지역 목사, 크리스천들을 모아 행사



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러브소나타>도 준비 중이고요, 일본은 한국에 비해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적고 무교회회가 많은 곳입니다. 신학대학교도 줄어가는 추세고, 성도 10명이 안 되는 교회에 가서 안테나를 달아줄 때 그 사람이 아닌 그 지역에 달아 준다고 생각하면 무척 몽클합니다.

배>아웃리치든 선교 여행이든 늘 받는 쪽보다 가는 쪽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열 배는 더 기뻐하게 되지요. 또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선교사들, 특히 오지 선교사들에게는 안테나 한 대가 정말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한번은 여러 지역 선교사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희망하는지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적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의외로 한국 드라마를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오지니까 한국 말과 문화가 그리웠던 거죠. 아이들도 말을 잊어버리고, 안테나가 그만큼 귀한 거지요.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강화되면 좋을까요.

배>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른이 봐도 감동입니다. 엄마들이 좋아하죠. 세계 공통어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차세대부터 퍼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선교사들의 연합은 일본에 가면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러브소나타>를 했던 작은 도시 목사님들이 다시 와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정>인도네시아는 돈과 자원,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한국 기업인들도 많습니 다. 벌써 CGN 사역에 감동받고 협력을 자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 더 사역을 알리고 현지교회 연합을 이루기 위해 CGN 주최로 합창제 같은 것을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손>CGN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본부장을 맡았던 박종렬 목사님입니다. 당시 박 목사님이 초기 4,5년 직원들을 철저히 선교 훈련을 시켰습니다. 퇴근 시간도 제대로 없었고, 지금 생각하면 좀 심해보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당시 직원들이 다 자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이 일을 직업이 아닌 선교로 생각한 것이지요.

배>지금 실제 선교사로 파송된 직원들도 있고, 선교를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직원들도 있죠. 다 열매네요. 또 당시 직원들이 또 다시 이곳의 리더가 되어 이끌고 있습니다. 처음의 순수성,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동역자들이 위해서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만나고 성경 공부도 하며 꾸준히 비전을 공유해 나가면 사역에 더 큰 힘을 발휘하리라 생각합니다.

손>이 사역은 영리사업도 아니고 방송사로 우뚝 서는 것이 목표도 아니지요. 계속 선교에 감동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본분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이야기

CGNTV는 성탄절을 맞아,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채로운 특집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성탄특집 드라마 <택시>

| 방송시간 | 12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크리스마스 이브, 택시 안에서 일어난 두 사람의 인생 변화 이야기. 2013 토론토 국제영화제 수상작. 일상이 지루했던 시카고 외곽의 한 택시기사는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의 마지막 승님을 차에 태운다. 승님의 행선지는 자살로 악명 높았던 다리. 택시기사는 그 승님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며 그를 도우려 한다. 밤이 깊어질수록 승님의 마음은 완고해지는 것 같아 보인다. 택시기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애쓴다.



다큐멘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 방송시간 | 12월 24일(수) 오후 9시 40분

'약할 때 강함 되시네'의 작곡가 CCM가수 데니스 저니건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데니스 저니건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청년 시절, 동성애 문제로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 교회 섬기는 일에 더욱 집중하며 이겨내 보려 했지만 혼란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동성애로 고통에 휩싸여 살아가던 데니스가 동성애를 극복한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 나가셨는지 잠잠히 그리고 있다.



말씀(해외)-성탄메시지

| 방송시간 | 힐송처치 메시지: 12월 24일(수) 오후 4시 40분
데이비드 플렛의 <래디컬>: 12월 24일(수) 오후 11시 50분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12월 25일(목) 오후 11시 50분

CGNTV 해외 유명 목회자 말씀 코너들에서는 그들이 전하는 특별한 성탄 메시지를 준비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펼쳐지는 열정이 넘치는 강사들의 말씀을 통해 좀 더 특별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선교방송으로 품은 처음의 순수성,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정>복음방송 이상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지사 출범을 보면서 CGNTV가 선교사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끈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일전에 마다가스카르 한 선교사님께 안테나를 달아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지역 선교사들이 그 일을 계기로 모임이 생겼다고 합니다. 함께 교제하고 설교 이야기하고, 국내 협력 교회들과도 사역을 위해 더 끈끈한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즌2-통일 목소리>

| 방송시간 | 12월 23일(화) 오전 9시 40분

성탄절을 맞아 남북이 만난 특별한 커플 두 부부를 초청해 북한의 크리스마스, 그들이 보낸 첫 크리스마스, 남한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생각 등을 들어본다. 또한 성탄을 맞아 남북이 하나 돼 단란한 가정을 이룬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허기복 목사 편>

| 방송시간 | 12월 25일(목) 오전 11시 30분

성탄절을 맞아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탄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연탄 나눔 은행 허기복 목사를 초대했다. 연탄 나눔 은행은 서울 2400가구에 연 300만 장의 연탄을 지원하고 있는 곳.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에서 이웃들과 동행하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 위 프로그램은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역에 희망을 보며

인도네시아CGNTV는 지난 9월 <러브 인도네시아>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인도네시아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성황리에 마친 행사는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 및 단체 간 연합의 가치가 돼 인도네시아CGNTV 출범의 청신호가 됐다. 이에 본사 박두진 제작국장과 인도네시아 지사 윤영준 국장을 통해 행사 뒷이야기 및 인도네시아CGNTV의 현재를 들어봤다.

1. <러브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지사 설립 취지에 맞춰, 지사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문화적 다리가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현지인들의 조인이 반영돼 현지에 더 적합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 프로그램 준비는.

일단 출연자들이 많아서 섭외 요청 건이 많았습니다. 또 출연진들에 따라 노랫말을 번역, 무대 연출을 준비했고, 배경이 되는 영상도 스무 가지가 넘어 다소 손이 부족했습니다. 아이유, 에이핑크 등등 유명 연예인들 축하메시지도 눈길을 끌었는데 즉흥적으로 촬영한 이들도 많아서 매 순간 진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였지요.(웃음)

3. 현지 출연진들 섭외는.

인도비전 라이프체널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이들이며 이미 검증된 크리스천들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4. 방청객 초청 과정은.

인도네시아교회협의회와 복음주의교회협의회, 오순절교회협의회, 전국기도네트워크, My Home Indonesia 등 현지 교회 연합체들을 중심으로 초청했고, 리더십 미팅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본 행사에는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초대했습니다. 좌석이 채워질까 우려했는데, 리더십 미팅, 본 행사 모두 꽉 찼습니다.

5. 무슬림 국가였는데.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이지만 교회행사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스태프들 중에는 간혹 무슬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권 서트로 진행된 행사여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6. 가장 기뻐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땅에 CGNTV가 지혜로운 방법으로 행사를 마쳤다는 점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행사 후 현지인들이 무척 고마워했고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했구나, 앞으로 소망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지 한인교회, 선교사들이 연합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감사했습니다.

7. 현재 지사에서 방송되는 콘텐츠들은.

<러브 인도네시아>가 양국 화합의 모습이 잘 강조되어 방송됐고, 지금은 본사 문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현지어 자막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현지의 기독교 행사, 우리가 몰랐던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역사,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지인들의 모습 등이 방송을 통해 소개될 예정입니다.

8. 지사를 위한 기도제목은.

인도네시아를 향한 큰 비전을 갖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고, 인도비전과 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현지 교단, 교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까이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기타시청문의] 02-796-9800

☑ 위성TV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3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 스마트폰

1. 어플리케이션 CGNTV Live
 - 이용방법: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2. 모바일웹 m.cgntv.net
 - 이용방법: 인터넷 주소 창에서 m.cgntv.net 로 접속
3. 팟캐스트
 - 이용방법: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폰: 캔디 팟캐스트)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 영상 다운로드

☑ 케이블TV

- ▶ CJ 엔터테인먼트 ch.70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OMS ch.703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NIB 남인원방송 ch.702번 (D-Lux 상품)
- ▶ CS 푸른방송 ch.702번 (프리미엄형 상품)

☑ 인터넷 서비스

CGNTV홈페이지에서는 고화질 Live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CGNTV인터넷 (www.cgntv.net)
2. CGNTV유튜브채널 (Youtube.com/Globalcgn)

☑ IPTV

- ▶ **allheG**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SK Btv** ch.554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LG U** ch.183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 SNS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CGNTV의 최근 소식과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www.facebook.com/cgntv
- 트위터 www.twitter.com/cgntv

온기로 가득했던 1박 2일

매주 월요일 CGNTV에서는 우리의 향수를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자연을 생활 터전으로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과, 오랜 세월 그들과 더불어 있는 고향교회를 그린 프로그램,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다.

매주 우리나라 동서남북 끝에서 끝으로 증횡무진 바쁜 <고향교회와 함께> 카메라가 이번에는 뮤지컬 배우 양준모 씨를 대동하고 경상남도 남서단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 남해군 설천면 '설천교회'를 찾았다.

설천면은 양준모 씨의 고향이기도 하다. 특히 선교사인 양 씨의 아버지가 설천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양 씨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 전부터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에게 설천교회는 진정 고향교회이다. 50명 남짓한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교인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노인들이고, 60년 역사를 갖고 있다.

양 씨는 모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밟아 할머니와 나란히 예배도 드리고, 고향교회 목사님과 군고구마를 까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눴다. 하지만 모처럼 찾아온 재주 많은 젊은 아들이 그냥 쉬고 있을 순 없는 법. 차츰 코끝이 시큰해지기 시작했던 지난 11월 말, 그는 주말 내내 목사님을 따라 일하고, 전도하고, 심방하며 교회 사역을 함께 했다.



1

1. 설천면의 특산물 유자. 이곳은 섬이지만 산이 지역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어업 보다 농업이 발달했다. 유자와 더불어 마늘, 시금치 등도 특산물.
2. 모처럼 고향을 밟은 양준모 씨, 감회가 새롭다.
- 3,4. 양 씨에게 떨어진 첫 번째 미션은 설천교회 권사님의 유자 밭에 가서 유자를 따는 일이다. 하지만 올라가는 사다리도 아슬아슬, 시작부터 만만치 않다. 권사님은 작년 경운기 사고로 남편을 잃어 늘 일손이 아쉬웠다.



2



3



4



5



6

5. 일손을 도운 후 수확의 기쁨을 느끼며 마무리.

6. 두 번째 미션,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성도를 돕는 일이다. 신앙을 가진 후 가게가 더 잘돼 감사하다는 성도. 냉기 도는 날씨에 후루룩 칼국수 한 젓가락이 간절했지만, 그는 먼저 성도를 도와 국수 뽑는 일을 성심껏 마치고, 시장을 반찬으로 한 그릇의 든든한 행복을 누렸다.



8



7

7. 고향의 인심인가, 여러 일과 중에 온기 도는 먹거리가 계속된다. 고구마를 얹어 놓은 난로를 사이에 두고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 양 씨 부친의 선교사 파송 이야기 등이 달콤한 온기와 함께 따뜻하게 오간다.

8,9. 설천교회에서 맞는 주일 아침. 달란트에 맞게 모든 음악 사역에 그가 배치됐다. 일일 성가대 지휘자를 맡아 성가대원들과 찬양도 드리고, 예배 특별 찬양도 맡았다. 동행한 그의 아내는 예배 반주를 섰다.



9

10. 예배 후 교회의 주일 풍경 그대로 그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심방도 나섰다. 아버지의 사역을 돕는 교회에서 아내와 함께 찬양을 섬기고, 모처럼 조모와 예배도 드렸던 양 씨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고향을 지키고 있는 고향교회에 머물며 도착했을 때의 설렘만큼 돌아가는 마음도 훈훈했다.



10



‘변하지 않는 실재’와 ‘변하는 실재들’의 융합, 미디어 선교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싫든 좋든 세계화와 디지털 혁명,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이라고 표현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방식은 춘추전국시대에 돌입한 느낌을 준다. 아침에 TV로 최신 뉴스를, 출근길에 지하철이나 자동차에서 DMB로 드라마를 본다. 와이브로로 인터넷을 검색하는가하면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 유튜브와 팟캐스트 등 오픈미디어를 통해 쇼핑을 하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대하고 전한다. 교회와 크리스천 또한 이 같은 생활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인간의 삶과 사고, 생활방식 등 ‘변하는 실재들(The realities of change)’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변하지 않는 실재(Unchanged reality)’, 즉 ‘복음(Good news)’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드러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전파하는 게 미디어 선교의 사명이다. 따라서 교회는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분야에 비판적이면서도 창조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간 상호작용을 일으켜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방법론을 추진해야 한다. 반면 미디어가 과도하게 잘못 사용될 때는 ‘칼날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피조세계인 미디어에 지나치게 종속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공간이 진정한 자유를 넘어 현실과 유리된 공간을 정당화하고 인간의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죄까지 용인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위협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체적 사회질서와 윤리를 파괴하고 잘못된 사고체계를 트렌드, 변혁, 대세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유튜브 등을 통해 기존 질서 내의 가정과 성(性)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유포하고 성과 신분을 숨긴 채 무제한적 죄의 공간으로서 ‘하나님이 없는 새로운 바벨탑’을 쌓아가는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미디어 종사자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세계관, 역사관에 따라 서로 얼마든지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미디어의 장단점을 어떻게 선교에 적용할지를 연구하는 동시에 과도하거나 잘못 사용될 때는 어떻게 방어를 해나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미디어 콘텐츠는 하나의 좋은 소스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One source Multi uses’. 따라서 선교적 미디어는 비기독교인의 영혼 구원, 거듭난 크리스천의 양육과 생활 정착, 또 다른 비기독교인의 기독교화라는 ‘재생산 선교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상호소통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미디어 선교는 기독교적인 선한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익숙함과 새로움의 조화를 어떻게 스토리텔링으로 재구성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관리, 탁월성, 업그레이드 능력, 후천적 특화된 전문성 등 ‘열린 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디어 선교의 가장 훌륭한 자질로 남들에 비해 넓고 깊은 상상력, 다루는 주제가 갖고 있는 복잡한 전체 모습



을 기꺼이 탐구하려는 용기 등이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디어 선교에 있어 THINK정신이 요구된다. “T=True 진실한가, H=Help for 다른 이에게 도움 되는가, I=Important 중요한가, N=Necessary 필요한가, K=Kind 겸손이 담겨있는가.” 콘텐츠를 명품화 하고 보다 깊이와 넓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이 뒷받침된다면 THINK정신으로 미디어 선교의 새 장을 열어갈 수 있다.

우리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가 세상 속에서 선전을 보였던 걸 목격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저예산으로 제작된 비 제도권 영화다. 현실 비판의 성격이 강하거나 감독의 주관이 뚜렷해 상업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김우현 감독의 ‘팔복’ 이후 신현원 감독의 ‘소명’, 김종철 감독의 ‘회복’, 김상철 감독의 ‘제사, 옥한흠’ 등은 비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큐멘터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미디어 선교가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철저히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살아있는 현장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저 기독교의 신앙을 복돋아주기 위해 연출된 드라마가 아니어야 한다. 생선처럼 펄펄 뛰는 살아있는 현장성을 담아내 비기독교인들도 관심을 갖게 해줘야 한다. 이는 작위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진실에 모든 이들이 열광하기 때문이다.

둘째, 소재의 참신성을 세련되고 감각적인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젊은 기독교인들은 불만만 가치가 없다면 기독교영화라고 해도 결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과거 ‘소명’과 ‘회복’은 낯선 남미의 아마존과 예루살렘을 관객의 눈앞에서 그대로 재현해줬다. 이는 미디어가 새롭게 구현할 몫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다.

21세기는 지식과 지혜를 찾아가서 넣어주는 시대에서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찾아오는 시대다. 미디어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시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할 수 있다.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막고 있는 국가나 지역이라 할지라도 외부에서 위성 내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얼마든지 원하는 정보를 줄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기기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막을 문은 점점 좁아진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예언자적인 통찰력을 갖고 급속한 변화를 인정하는 동시에 미디어 선교의 비전을 재확인하고 교회와 사회 간 괴리를 더욱 좁혀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모든 계층과 문화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미디어 선교에 보다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할 자세가 필요하다. 미디어 선교에 나설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해나가는 한편 복음적이면서도 비기독교인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전문화, 특성화되지 않은 미디어는 흥미 유발 흡인력이 부족해져 설령 접속했다라도 지속적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된다.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가용 자원을 연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협력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단계에서부터 목표를 잘 설정하고 주제에 적합한 탁월한 콘텐츠를 생산, 유통해야 한다. 사랑, 회복, 진실, 화해, 반성, 경외, 용서, 봉사과 배려 등의 선한 가치를 담은 문화와 콘텐츠를 적극 만들어 이를 미디어를 통해 널리 전해야 한다.

따라서 2015년 ‘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라는 미션과 ‘글로벌 선교교육방송’이라는 비전을 갖고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CGNTV의 분발이 요구된다. 미디어는 가치관을 혼미케 하는 문화전쟁의 시대에 거짓이 아니라 진실, 미움이 아니라 사랑, 불의가 아니라 공의, 그리고 이기적 욕심이 아니라 봉사와 배려의 가치를 존중하고 선한 가치를 담은 문화와 콘텐츠를 적극 전해야 한다. 이는 미디어를 통해 “내가 너 회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현해나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CGNTV 해외지사 소식

미주 CGNTV '빅 드림어 콘서트' 감동 무대



미주CGNTV가 <빅 드림어 콘서트(Big Dreamer Concert)>를 개최해 미주지역 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CGNTV와 KYVC(청소년비전센터)가 공동주최한 이번 공연은 영혼을 울리는 작은 천사, 13살 CCM가수 크리스토퍼 디플리가 출연해 지난 11월 14, 15일 각각 감사한인교회, 엘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됐다. 디플리는 시각 장애와 자폐증을 앓고 있지만, 진심을 담은 찬양으로 미 전역 교회를 돌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소년. 이번 공연 수익금 전액은 CGNTV의 중남미 신학생 지원 및 KYVC 학생들의 음악교육에 사용될 예정이다.

일본 CGNTV 연말연시 특집 프로그램



일본CGNTV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성탄 특집 시리즈 방송으로, 시민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찬양 프로그램 <내 영혼의 찬양>을 통해 12월 한 달간 매주 방송한다. <책과의 여행>, <신앙과 인생> 등도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선보일 예정. 또한 지난 12월 6일 요도바시 교회에서 창조과학 사역의 일환으로 <성경과 현대과학>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 내 주요 4개 창조과학사역 단체가 '일본 크리에이션포럼'이란 이름으로 네트워크를 발족해 한국과 상호 사역을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중문 CGNTV 중문대 네트워크 확장 사역



중문CGNTV는 2015년 대만제작센터의 현지 법인 설립과 후원회 결성을 위해 대만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상대적으로 네트워크가 약한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할 예정. 이에 중문CGNTV는 지난 11월 21일 대만 남부 타이난(台南)의 지역 목회자 리더십 연합 기도회에 참석해 중문CGNTV 사역을 홍보했다. 참석 목회자들의 호응과 격려로 남부 네트워크 형성에 기틀을 마련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아랍 CGNTV 블레싱 아랍 집회 확대



아랍CGNTV는 최근 매 월 아랍 주요 나라의 복음화를 위한 <블레싱 아랍>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엔 에티오피아, 11월엔 카타르, 12월엔 이집트 목회자를 초청해 집회를 가졌다. 해당 지역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아랍을 위한 중보', '성도, 사역자들 간의 연합'에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 아랍CGNTV는 2015년 CGNTV 개국 10주년을 맞아 '아랍의 4계절'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아랍권 중고등부 학생들의 기독교 가치관 정립을 위한 토의 프로그램 등을 기획 중이다.

태국 CGNTV 태국 크리스천 채널 위한 협력



태국CGNTV는 지난 11월 C.C.T 교단(태국기독교협회)이 마련한 2015년 사역 협력 회의에 참석했다. 본 회의는 태국 내 기독교 방송국, 라디오, 프로덕션팀 등 태국 미디어 선교 사역 단체들이 모두 모인 자리로 2015년을 앞두고 태국 내 첫 번째 크리스천 채널을 위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한 각 단체들은 이 날 본 사역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향후 단체별 제작 콘텐츠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CGNTV 콘텐츠 제작 착수



지난 9월 출범한 인도네시아CGNTV가 다양한 현지 사역들을 취재하면서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을 시작했다. 인도네시아교회협의회(PGI) 총회 촬영을 시작으로 무슬림 국가에서 진행되는 크리스천들의 삶과 기독교 연합체들의 모습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9월 17, 18일에 진행됐던 <리브 인도네시아>의 감동적인 뒷이야기도 선보일 계획. 이밖에 인도네시아CGNTV는 사역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indonesia.cgntv.net'을 통해 시청 방법 등을 알리고, 현지 교회, 교단들과의 네트워크에 주력하며 한인교회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영상아카데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CGNTV 국내소식

동안교회, CGNTV 적극 후원



CGNTV는 지난 11월 23일 서울동안교회(담임목사 김형준)를 찾아 CGNTV 사역을 알리며 후원을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CGNTV 방송선교의 비전을 보다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돼 의미가 컸다. 특히 동안교회는 CGNTV를 통해 김형준 담임 목사의 말씀이 방영되고 있는 협력교회로, CGNTV 국내 사역을 위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자리였다.

동안교회에서는 이날 주일 1부부터 5부까지 전 예배 때마다 CGNTV를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했고, 상영 후 평소 CGNTV의 비전을 격려했던 김형준 목사가 후원 동참 이유

를 설명하며 성도들에게 후원을 독려했다. 이날 총 230여 명의 성도들이 후원을 약속하는 값진 성과가 있었다.

200번째 후원자가 된 김자원 양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으로, 이날 소개 영상을 보고 직접 후원을 자원했다. 그녀의 쌍둥이 자매 김자연 양도 자원 양과 뜻을 같이 하며 201번째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자매들은 “평소 다른 사람들이 전파선교를 후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CGNTV를 알게 되고 후원을 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이들은 앞으로 한 달 용돈 중 일부를 후원할 예정이다.

CGNTV 정기 후원자 2만 3천명



CGNTV 정기 후원자가 2만 3천 명을 돌파했다. 지난 10월 5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교회에서 진행된 ‘2014 CGNTV 정기 후원 행사’에서 지난 해 2만 여 명에 이어 총 3800여 명이 추가로 후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CGNTV는 더욱 든든한 동역자 그룹을 얻게 됐다. 특히 CGNTV 운영위원들이 행사를 위해 직접 선물을 후원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CGNTV 배지를 달아주는 등 열의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성도들이 약정한 후원금은 이후 6천여 편의 CGNTV 프로그램 제작과 170여 개국 방송을 위한 위성 빔 사용 지원, 현지 언어 방송 제작비 등으로 사용된다.



최경주 선수 초청 골프대회

최경주 선수 초청 CGNTV 후원 골프대회가 지난 10월 15일 춘천 ‘The Players’ 골프 클럽에서 진행됐다. CGNTV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최 선수를 비롯해 전 LPGA 챔피언 김미현 선수를 비롯해 총 125명이 참석했다. CGNTV 홍보대사인 최 선수는 대회 시작 전, 김미현 선수, 정상건 CGNTV 운영위원장과 시타 행사를 가졌다. 최 선수는 몸소 참가자들의 퍼팅을 지도해주는 등 대회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신앙 간증을 통해 CGNTV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참가자들에게 후원을 독려하기도 했다.



CGNTV 시청자 패밀리 데이

CGNTV는 지난 12월 9일 마이크 임팩트 스튜디오에서 CGNTV 1, 2기 모니터단 총 11명을 초청, ‘시청자 패밀리 데이’를 가졌다. 올해 처음으로 모니터단 제도를 실시한 CGNTV는 한 해 동안 수고한 1, 2기 모니터단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2015년 신설될 프로그램들을 이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CGNTV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5년 활동할 3기 모니터단을 모집한다. (문의: 02-3275-9529)



월요 중보기도팀 일일 아웃리치

CGNTV 월요중보기도팀이 지난 11월 17일 경북 문경에 있는 문경현리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최상헌 담임목사 부부와 성도들의 환대를 받으며 도착한 중보기도팀은 현리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갖고, 교회 교육관에 안테나를 설치했다. CGNTV를 만난 현리교회 성도들은 CGNTV 화면을 보자마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중보기도팀의 섬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CGNTV 드림온 콘서트 간증과 고백, 격려와 도전의 자리



그녀를 위한 목소리

를 참 잘 쳐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던 저 아이를 살려주셨으니, 저를 살려주시면 저 아이와 함께 다니며 노래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녀가 처음 유학길을 떠날 때, 당시 기도를 해주셨던 목사님은 그녀에게 한 가지를 물었다. “은영아 외국에 가면 누가 제일 빨라?” 그녀는 그때 “하나님”을 가슴에 새겼다. 그녀의 어머니는 CGNTV가 나오기 이전부터 양식처럼 그녀에게 온누리교회 말씀CD, 테이프 등을 보내주었다. 유학생생활을 시작하며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첫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던 그녀는 아이가 엄마를 찾듯, 늘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시작했고, 어느 순간 CGNTV를 만났다.

“독일에서는 교제에 한계가 있잖아요. 때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分辨이 어려웠는데, CGN을 통해 하나님의 답변을 들을 때가 많았어요. 복음을 들고 나가 찢기고 돌아올 때도 방송을 통해 다른 분들을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위안도 얻었고요.”

그녀의 남편과 세 아이들도 이제 CGNTV와 친하다. 특히 그녀는 세 아이가 CGNTV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한국 말도 가르침 이상으로 능숙해 기쁘다.

그녀는 ‘드림온 콘서트’에서 ‘토크’가 끝난 후, 쉼리스트인 남편과 함께 온 몸을 다해 그 이름을 위한 찬양을 올렸다. “드림온 콘서트에서면서 기적이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그냥 시청잔대.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 CGN에 대한 고마움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 앞에서 나눌 수 있어 영광스러웠어요. 저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2014 CGNTV ‘드림온 콘서트’에서 ‘드림온 토크’ 시청자 대표로 출연한 이은영 씨의 사연은 객석을 채운 참석자들에게 남다른 감회를 남겼다.

이은영 씨는 두 달 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올해 만 40세인 그녀는 20년 전 성악공부를 위해 독일로 유학을 떠난 뒤, 꼭 20년 만에 치료를 위해 다시 고국 땅을 밟았다. 충격을 수습할 새도 없이, 결혼을 해서 세 아이를 낳은 곳을 부랴부랴 정리하고 떠나는 것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에겐 폭풍처럼 몰아닥친 시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두 달 새 그녀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소프라노로서 또는 시청자로서 주저함 없이 여러 사람들 앞에 설 만큼 여일하게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이유로 CGNTV를 꼽았다.

그녀에게 CGNTV는, 스무살 시절 혈혈단신 유학길에 오른 후, 남편을 만나고 11살, 8살, 5살 세 아들을 낳아 키우는 20년 동안, 위로를 주는 TV 그 이상의 의미였다. 아무도 삶과 신앙, 혹은 고난을 이기는 방법 등을 가르쳐 줄 수 없는 곳에서 CGNTV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목소리’였다.

특히 둘째 아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약한 몸으로 태어났을 때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에 부딪혔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둘째는 신체의 모든 결합조직이 연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험한 증후군을 안고 태어났다. 당시 병원에서선 비판적인 말만 되풀이 했고, 그녀는 매 순간 희망 없는 검사를 받는 어린 아들을 지켜봐야 했다. 그녀는 아이가 힘들어 잠을 못 이룰 때면 곱절은 가슴이 아팠다. 그때 그녀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이 CGNTV를 켜는 것이었고, “네가 내게 말한다고 했으니, 내가 책임져주겠다”는 말씀에 위로를 받으며 새 아침을 맞곤 했다.

“늘 걱정이 되는 아들인데, 아이가 저 어린 손가락으로 피아노



2014 CGNTV 후원을 위한 ‘드림온 콘서트’가 지난 11월 27일 오후 7시부터 서울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렸다. CGNTV 전 직원들은 이날 다섯 시간 전부터 행사장에 도착해 뜻을 모아 행사를 준비하고 참석한 300여 명의 초청자들을 일일이 환한 얼굴로 맞았다. 콘서트는 가야금 연주가 문재숙 권사와 그의 제자들이 연주하는 국악 ‘감사 찬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가 환영인사를 전하며 본격적인 순서의 시작을 알렸다.

식순은 사전에 마련된 식탁의 교제를 나눈 뒤, 박지윤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CGNTV 사역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순서들로 채워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무대에 오른 출연자들과 객석에 있는 참석자들이 콘서트를 넘어 간증과 대화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로 진행돼 더욱 뜻 깊은 자리였다.

가수 노사연, 테너 배재철 씨의 공연과 해외 선교사, 국내 목회자, 시청자 대표가 동석한 ‘드림온 토크’가 진행됐고, 해외 선교 현장, 국내의 시청자들의 간증을 담은 영상들이 상연됐다. 메시지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가 전했다, CGNTV 직원들의 특별

찬양과 온누리교회 박종길 목사의 축도로 행사가 마무리 됐다.

올해 처음 시도된 ‘드림온 토크’는 CGNTV의 수혜자를 자처하는 선교사, 목회자, 시청자 대표가 CGNTV를 통해 얻은 은혜를 진솔하게 전하는 자리였다. 가나에서 온 이태현 선교사와 쪽방촌 등대교회 김양옥 목사는 “사역 중 산소 호흡기처럼 CGNTV와 늘 함께 하고 있다”며 “성도들도 애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청자 대표로 참석한 독일에서 온 소프라노 이은영 씨는 대장암 말기 투병 사실을 밝혀 주위를 안타깝게 했지만, “CGNTV를 통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고 고백해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그녀는 이날 쉼리스트인 남편의 반주로 감동적인 찬양 무대도 꾸몄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이 자리가 간증과 고백의 자리, 격려와 도전의 자리가 돼 감사하다”며 열왕기상 17장 내용을 들어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셨듯, CGNTV 사역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첫 스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쁜 삶의 위로, 눈이 뜨이는 시간

후원자 | 강OO 님

최근 한 50대 여성이 CGNTV를 방문했다. 모 교회 집사인 그녀는 그간 모은 십일조라며 CGNTV 후원 팀에게 봉투를 건넸다.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녀가 몇 달치의 십일조를 꼬박 모았을 금액이었다.

3년 전 송파구로 집을 옮긴 그녀는 다니던 교회와 떨어져 교회에 자주 나갈 수 없었다. 또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예배와 말씀에 더욱 갈급해 있었다. 평소 하용조 목사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녀는 방송을 통해 우연히 CGNTV를 알게 됐고, 자신 가까이로 찾아와 준 예배와 말씀의 장에 더없이 감사했다.

새벽예배 시간이 알람이 됐고, 출근길에는 어김없이 스마트폰을 접속했다. 그녀에게 불필요한 광고도 없이 국내의 저명한 목사들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고 행복이었다. 그녀는 "평소 여건과 시간이 안돼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때가 많았는데 교육적인 부분도 강하고,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함께 있던 남편이 그 설교 또 듣느냐고 되물을 정도라고.

그녀는 예배 시간은 물론 '맥스 루케이도', '조셉 프린스' 등 CGNTV 주요 해의 말씀 강해 강사들까지 훤히 꿰고 있었다. 그녀는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고 기도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분야별 전문가들의 강의를 아무 조건 없이 들을 수 있는 것은 큰 혜택이었다"며, "CGNTV 덕분에 몰랐던 것을 깨닫고 눈이 뜨여 삶에 큰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선뜻 내지 못하고 모아둔 십일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CGNTV가 떠올라 1시간 반을 들여 CGNTV로 찾아왔다. 오는 길에서도 말씀과 함께 했다. 그녀에겐 CGNTV가 가장 먼저 떠오른 교회였다.

후원안내

CGNTV는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선교사!
선교지를 품은 여러분의 손길은
세계 각국에 복음으로
선포돼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1. CGNTV 방송사역 후원

1) 정기후원

- (1) CMS 자동이체(Cash Management Service)
<http://give.cgntv.net> '정기후원하기' 클릭, 정기후원약정서 작성
- (2) 은행 자동이체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를 통해 후원 가능

2) 일시후원

- (1) <http://give.cgntv.net> '일시후원하기' 클릭
- (2) ARS 전화후원 : 060-700-1660 (한 통화에 5천원)

후원계좌번호

❖ 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외환은행 630-004878-302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NH농협 301-0072-3639-01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 정기/일시 후원문의 : 02)796-2243

2. 드림온 캠페인-선교지 안테나 설치 후원

본 후원은 170여 개국 선교사님들께 위성 안테나를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 1) 인터넷 신청 : <http://give.cgntv.net> '드림온 캠페인' 클릭
- 2) 후원계좌 :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 문의 : T. 82-2-796-2243 / F. 82-2-796-1398

3. 기도후원

정기 기도모임을 통해 CGNTV를 지원하고 격려하실 수 있습니다.

- 1) 매주 금요일 아침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1층 카페방
- 2) 매달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CGNTV 본사 1층 비전홀

CGNTV 실행위원회

배중수(실행위원장) 김종건 김용기 김종성 이광형 장규환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구재영 권득한 김관근 김관식 김명세 김명철 김성목 김성진 김영길 김오성 김 인 김인경 김장렬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남상욱 문애란 문영기 박상송 박성호 박은영 박지수 박찬구 박현규 방찬중 서정호 서춘희 선우석 성필호 손한기 송영태 신철우 안대를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오진권 유병진 유익준 유이상 유인선 유주희 유철호 유 형 윤덕순 윤원식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병하 이석일 이영희 이용경 이용만 이은경 이인용 이일표 이장수 이창환 이춘희 이학일 이호영 이희연 임진욱 임창빈 장양희 장정심 정광택 정영기 정용주 정진호 조옥형 지성한 차준한 최도성 최철강 최정수 최훈학 하성기 한상준 한형식 함승아 홍혜실 황광석 황상윤



CGNTV 편성 프로그램

CGNTV Program

일	월	화	수	목	금	토
<p>05:00 일본 야마토 갈보리 채플예배</p> <p>06:0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영어자막)</p> <p>06:30 생명의 삶</p> <p>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p> <p>08:3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p> <p>10:4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p> <p>11:20 새벽나라</p> <p>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p>	<p>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p> <p>05:40 CGN 투데이</p> <p>06:00 생명의 삶</p> <p>07:30 [말씀]서정오 목사(동성교회)</p> <p>08: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p> <p>09:00 [말씀]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p> <p>09:4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p> <p>10:20 [말씀]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p> <p>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1:3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p>	<p>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p> <p>05:40 CGN 투데이</p> <p>06:00 생명의 삶</p> <p>07:30 [말씀]권성수 목사(대구동성교회)</p> <p>08:10 요셉솔람 목사 초청세미나 <예레미야></p> <p>09:00 [말씀]라준석 목사(시드니새순교회)</p> <p>09: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p> <p>10:20 [말씀]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p> <p>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1:30 선교다큐</p>	<p>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p> <p>05:40 CGN 투데이</p> <p>06:00 생명의 삶</p> <p>07:30 [말씀]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p> <p>08:10 온누리 회복축제 <왕의 임재> 주제강의</p> <p>09:00 [말씀]유진소 목사(ANC)</p> <p>09:4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p> <p>10:20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p> <p>10:4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p>	<p>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p> <p>05:40 CGN 투데이</p> <p>06:00 생명의 삶</p> <p>07:30 [말씀]김창근 목사(무학교회)</p> <p>08:10 이만열 교수의 한국기독교 역사강좌</p> <p>09:00 [말씀]김병삼 목사(만나교회)</p> <p>09:40 충성! 은혜로軍</p> <p>10:20 [말씀]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p> <p>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p>	<p>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p> <p>05:40 CGN 투데이</p> <p>06:00 생명의 삶</p> <p>07:30 [말씀]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p> <p>08:10 2014 임직자스쿨</p> <p>09:00 [말씀]이기훈 목사 (시드니온누리교회)</p> <p>09:4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p> <p>10:20 이재훈 목사의 비전메시지</p> <p>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1:3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p> <p>05:40 CGN 월드리포트</p> <p>06:00 생명의 삶</p> <p>07:30 [말씀]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p> <p>08:10 조셉 프린스의 은혜</p> <p>09:00 CGN 비전특강</p> <p>10: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p> <p>10:4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p> <p>11:20 휴먼다큐 C</p>
<p>13:10 미니콘서트 쉽</p> <p>13:20 어린이예배</p> <p>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p> <p>15:3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p> <p>16:00 CGN 비전특강</p> <p>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p>	<p>12:3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 (영어자막)</p> <p>13: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p> <p>14:1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p> <p>14:50 [말씀]이재철 목사(100주년 기념교회)</p> <p>15:3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6:00 [말씀]박성민 목사(한국대학생 선교회)</p> <p>16:40 매트 찬들러의 열매 맺는 성도</p> <p>17:10 나는야 주의 어린이</p> <p>17:40 새벽나라</p> <p>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12:30 [말씀]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p> <p>13:30 [말씀]정근두 목사(울산교회)</p> <p>14:1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p> <p>14:50 [말씀]박성근 목사(LA한인침례교회)</p> <p>15:3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6:00 [말씀]권혁빈 목사(열반인온누리교회)</p> <p>16:40 톨리안 차비진의 믿음의 영웅, 예수</p> <p>17:10 나는야 주의 어린이</p> <p>17:40 새벽나라</p> <p>17:50 휴먼다큐 C</p>	<p>12:30 [말씀]김지철 목사(소망교회)</p> <p>13:10 [말씀]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p> <p>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p> <p>14:50 [말씀]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p> <p>15:3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6:00 [말씀]현규 목사(서울영동교회)</p> <p>16:40 힐송처치 메시지</p> <p>17:10 나는야 주의 어린이</p> <p>17:40 새벽나라</p> <p>17:50 선교다큐</p>	<p>12:30 [말씀]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p> <p>13:30 [말씀]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p> <p>14:1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p> <p>14:50 [말씀]정감신 목사(예수향남교회)</p> <p>15:3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6:00 [말씀]양춘길 목사(뉴저지 필그림교회)</p> <p>16:40 컨퍼런스 : 은혜</p> <p>17:10 예수님이 좋아요</p> <p>17:40 새벽나라</p> <p>17:5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p>	<p>12:3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영어자막)</p> <p>13:30 [말씀]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p> <p>14:10 충성! 은혜로軍</p> <p>14:50 [말씀]마크최 목사(뉴욕IN2)</p> <p>15:3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6:00 [말씀]홍성욱 목사(안양제일교회)</p> <p>16:40 칩 잉그램의 두잉 곳</p> <p>17:10 나는야 주의 어린이</p> <p>17:40 새벽나라</p> <p>17: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p>	<p>12:00 [말씀]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p> <p>12:30 [말씀]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p> <p>13:30 [말씀]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p> <p>14:10 [말씀]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p> <p>14:50 [말씀]김병삼 목사(만나교회)</p> <p>15:3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16:3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p> <p>17:30 [말씀]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p>
<p>18:2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p> <p>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p> <p>20:3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p> <p>21:10 요셉솔람 목사 초청세미나 <예레미야></p> <p>22:1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p> <p>23:5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00:20 생명의 삶</p>	<p>18:50 [말씀]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p> <p>19:30 충성! 은혜로軍</p> <p>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p> <p>21:00 [말씀]김병삼 목사(만나교회)</p> <p>21:40 CGN 비전특강</p> <p>22:4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p> <p>23: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23:50 맥스 루케이도의 10분의 혁명</p> <p>00:20 생명의 삶</p>	<p>18:50 [말씀]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p> <p>19:3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p> <p>20:10 요셉솔람 목사 초청세미나 <예레미야></p> <p>21:0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영어자막)</p> <p>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p> <p>22:4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p> <p>23: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23:50 크레이그 그로셴의 인생의 조건</p> <p>00:20 생명의 삶</p>	<p>18:50 [말씀]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p> <p>19: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p> <p>20:10 온누리 회복축제 <왕의 임재> 주제강의</p> <p>21:00 [말씀]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p> <p>21:40 CGN 비전특강</p> <p>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23: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23:50 데이비드 플랫폼의 래디컬</p> <p>00:20 생명의 삶</p>	<p>18:50 [말씀]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p> <p>19: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p> <p>20:10 이만열 교수의 한국기독교 역사강좌</p> <p>21:00 [말씀]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p> <p>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p> <p>22:40 선교다큐</p> <p>23: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p> <p>00:20 생명의 삶</p>	<p>18:50 [말씀]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p> <p>19:3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p> <p>20:10 2014 임직자스쿨</p> <p>21:00 [말씀]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p> <p>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함에</p> <p>22:40 휴먼다큐 C</p> <p>23: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p> <p>23:50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입니다</p> <p>00:20 생명의 삶</p>	<p>18:3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 (영어자막)</p> <p>20:10 미니콘서트 쉽</p> <p>20:2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p> <p>21:00 [말씀]유진소 목사(ANC)</p> <p>21:4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p> <p>22:2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p> <p>23:0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p> <p>23:4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00:20 생명의 삶</p>